

“매일 아침 도서관 출근 연애·결혼 꿈도 못꿔요”

청년의 눈물

‘3포세대’ 젊은 날의 초상

꼬박 4년째다. 최지욱(30·가명)씨는 지난 2012년 초 전남대를 졸업하고 매일 아침 다시 그 대학 도서관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를 위해서다. 전남대 산림자원조경학부 임학과를 졸업한 최씨가 택한 길은 산림직 공무원. 그동안 4차례 공무원시험을 봤지만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 사이 경찰공무원학원도 1년 정도 다녔다. 우선 어떤 공무원이든 합격하고 보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관련기사 3면>

최씨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학과 생활을 했다. 하지만 졸업 후 진로는 막막했다. 연애와 결혼은 취업 이후로 미룬 지 오래고, 친구들의 전하는 피하고 있다. 취업이 삶의 최대 목표가 됐다.

가끔은 학과 공부만 했던 시간이 후회된다는 최씨는 “선배로서 후배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만 대학생활의 낭만보다는 토익 공부를 꼭 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학 인건에서부터 벌써 자취를 10년째 하면서 멀리 계시는 부모님께 전화 드리기도 미안하다”고 말했다.

캠퍼스 낭만 사라진지 오래
대학생들 전공보다 토익준비

대학 졸업 후 직장 8차례 옮겨
비정규직 전전하는 나는 ‘未生’

어떻게 결혼해 아내와 맞벌이
주택대출 이자 갚느라 출산 미뤄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20~30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2.5%로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방대 취업률은 역대 최저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대학생들은 일찌감치 캠퍼스의 낭만을 포기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도서관을 찾고 있다. 당장 생계를 위해 비정규직에 뛰어들어 청년들은 불안한 미래 때문에 한숨을 내뿜는다.

‘취업’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활을 거는 청년들이 늘면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그리고 꿈과 모든 삶의 가치를 포기한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지역의 단말기업체에서 일하는 박준영(34·가명)씨는 대학 졸업 후 지난 8년 동안 8차례나 직장을 옮길 정도로 만년 비정규직 신세다. 금융기관, 공장, 주유소 등 해보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다. 박씨는 “나이는 들고, 눈높이는 높아지면서 마음에 드는 직장을 찾기 힘들다”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조선대 4학년인 장치준(25·가명)씨는 답답하기만 하다. ‘취직만 바라보고 살더라도 너무 빠른 시대’라는 게 장씨의 표현이다. 4학년이 되고서는 취업 준비를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다른 곳을 바라볼 여지조차 없다. 토익과 오픽(OPIc), 한국어 자격증을 준비하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결혼한 청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결혼 2년차인 이형수(34)씨는 출산을 미뤘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지만 6000만원에 달하는 주택대출 이자를 갚기도 벅하다.

이씨는 “대학 때는 등록금을 마련하고, 취업 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투 아닌 전투를 치른 청년들이 결국은 직장을 구하고 나서도 결혼과 주택 마련을 위한 빚더미에 놓이면서 악순환을 반복하는 게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고교 학급당 학생수 24명으로

교육부, 2022년까지 ...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까지 확대

고교 학급당 학생수가 오는 2022년까지 24명으로 줄어든다. 직업고의 경우 산업계 수요를 감안, 학생 비중을 오는 2022년 30% 수준까지 확대한다.

교육부는 25일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7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고등학생 수 급감의 위기를 고교 질 개선의 기회로 삼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지난해 30명 수준에서 오는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4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광주의 경우 올 해 현재 일반고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4.7명, 전남은 29.4명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면 협력·탐구·토론형 수업을 확산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반면, 직업계고는 학령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입학 정원을 11만3000명(2015년) 수준으로 유지해 오는 2022년까지 직업

고 학생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까지 직업고 비중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산업계의 고졸 인력 수요를 감안한 조치로, 교육부 계획대로라면 올해 18.1%(1만1000여명) 수준인 광주지역 직업교육 학생 비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일반고 학생 수 감소에도 직업고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20년 직업교육 학생 비율이 23.3%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수행평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어색한 만남? 더불어민주당 김중민 대표와 당 지도부들이 25일 광주를 방문, 서구 치평동 한 음식점에서 광주시당위원장과 광주지역 광역·기초단체장, 총선 출마자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중민 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나란히 앉아 있다. <관련기사 2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SR 개통 ‘8월→연말’ 또 연기

<수서발 KTX>

목포~서울 강남 수서역 연결 용인역 공사구간 지반에 균열 보강공사 3개월 이상 걸려

서울 강남의 수서역과 광주, 목포를 오가는 제2의 KTX ‘수서발 고속철도(SR)’ 개통이 연말로 미뤄졌다.

25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SR이 통과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정차하는 용인역(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공사구간의 지반에서 보강공사가 필요한 크랙(균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강공사에는 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통도 애초 계획했던 8월 말보다 2~3개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SR은 작년 말 개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약지반 공사에 시간이 많이 들고 1-2 공구 건설을 맡은 경남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의 문제로 올해 8월 말로 개통이 연기됐었다.

이와 관련, 국토부와 SR 건설사업시행사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날 중순까지도 SR을 8월 말 개통한다는 계획이었다. 지난 16일 수서역 건설현장을 찾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는 8월 20일부터 아흐레간 ‘개통 전 최종점검’을 하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강 장관이 수서역 건설현장을 찾았을 때보다 이전인 3월 24일 용인역 공사구간 70m에 크랙이 생긴 것을 알았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5월 초까지 보강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국

토부에도 이같이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19일 애초 크랙이 나타난 구간 외에서도 크랙이 발견되면서 용인역 공사구간 전체(243m)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바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SR이 최대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 3조원이 투입되는 이 노선은 SR이 수서역에서 동탄역을 경유해 평택에서 기존 KTX노선(호남선)과 합류, 광주 송정역까지 운행한다. 광주와 익산, 정읍, 나주, 송정역, 목포역에도 열차가 정차한다. SR을 이용하면 수서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1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대 ‘1000원 밥상’ 먹어보니 ▶7면 자동차 빨리-중 지우릉차 유치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배려교통문화 작은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걸을 때는
'스마트폰'
사용안하기

운전할 때는
'정지선'
지키기

주정차할 때는
'정해진 곳'
에서 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APP
안드로이드 | 아이폰

광주광역시 GWANGJU CITY